

사회

추석연휴 심야·새벽 운전 피하세요

사망자 평일보다 20% 많아

4년간 통계...졸음·음주운전도 절대금물

추석 연휴에는 될 수 있으면 심야와 새벽에 운전하지 않는 게 좋은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또 사망사고의 경우 원인은 음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명절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로 지적됐다.

삼성화재가 도로교통공단과 자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석 연휴에 평일 대비 부상 사고가 평균 20~30% 증가했다. 이는 차량 1대당 탑승 인원이 많은데다 교통 체증으로 운전 스트레스와 피로가 늘어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평일과 비교해 추석 연휴에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사망자 수가 2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이 교통 체증을 피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많이 운행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추돌사고로 인

한 사망자 수가 평일(59.3%) 대비 70.4%로 11.1% 포인트나 높았다. 아울러 신호위반(11.7%), 중앙선 침범(7.8%)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가 전체의 79.5%에 달했다. 장거리 운전이 그만큼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의 작은 문제나 결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석연휴에 심야와 새벽 시간대의 대형 사고를 막는 방법으로는 7시간 이상 운전, 전조등 켜기, 운전자와 탑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도로별 제한 속도 준수, 무신호 교차로나 곡선 도로 주행 시 방어 운전 등이 제시됐다.

졸음운전은 음주 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3~4배 높아 2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며, 전체 교통사고의 40%는 후방 추돌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다치기 때문에 머리 받침대 높이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것도 요청됐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귀경하기 전날 과음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성묘 시 음복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진 자동차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길 차량과 귀성 차량이 집중되는 추석연휴 전날에는 대인사고가 평일보다 34.7% 증가했다.

추석 당일에는 다른 지역을 방문한 운전자가 평일보다 88.1%나 사고를 많이 냈지만, 생활권 내 사고는 21.5% 감소해 전체로는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당일 대인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2.7명과 7천128명으로 평상시보다 19.5%와 71.5% 많았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가 41.4%, 부상자는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중형기자 galee@연남뉴스

‘설봉호 구조’ 여수해경 3명 특진

해경대원 등 40명 표창

해상에서 불이 난 여객선 설봉호 탑승객 130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한 위업(광주일보 9월 7일 6면)을 이룬 여수 해양경찰 직원들이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 6일 여수 삼산면 백도 해상에서 화재가 난 4166t 여객선 설봉호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30명 전원을 구조한 일등 공신 317함(함장 임재철 경감) 승조원 가운데 3명을 선정해 경위, 경사, 경장 등 각각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선 다른 경비함정 승조원, 상항 처리 등에 공을 세운 다른 해경대원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10명)과 해양경찰청장 표창(30명)을 주기로 했다.

특별 승진 임용식은 제58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하루 앞둔 9

일 오전 10시 여수시 봉산동 경비함정 부두에서 해당 특진 경찰관 부인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특진 임용식에는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해 임용장을 전달하고 계급장도 달아줄 예정이다.

한편 설봉호 탑승객 전원구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구조 활동을 격려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7일 임재철 317함장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전화를 하는 등 격려가 잇따랐다.

부산선적 설봉호는 부산항을 떠나 제주로 향해하던 중 6일 새벽 0시 40분께 백도 북동쪽 7마일 해상에서 원리 모를 화재가 발생했으나 317함 여수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 등이 긴급 출동해 뛰어난 공조작전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130명 탑승객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부산서 ‘한글’ 새겨진 분청사기 발굴

광주이러 국내 두번째

부산지역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광주시 북구 충효동의 마상배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사진)가 출토됐다. 부산박물관은 “이달 초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반산입단지 발굴현장 가마터에서 한글이 음각으로 새겨진 분청사기 귀얄 문 대접 조각이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12cm, 두께 0.7mm가량의 분청사기 대접 조각에는 ‘라라라러로 료루’란 한글이 다소 큰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이 글 위쪽으로는 조금 작은 글씨로 ‘며도 도두’라는 글자도 있다.

분청사기의 제작시기가 16세



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1446년 한글본포가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한글 글귀는 지방에까지 한글 보급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1991년 광주 북구 충효동에 가마터에서 출토된 마상배(馬上盃·말위에서 술마실 때 사용하던 잔)가 유일했다. 잔 바깥 면에 한글로 ‘어존’이라는 글자가 음각돼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0분 해질 18시 49분 달돋이 16시 52분 달질 03시 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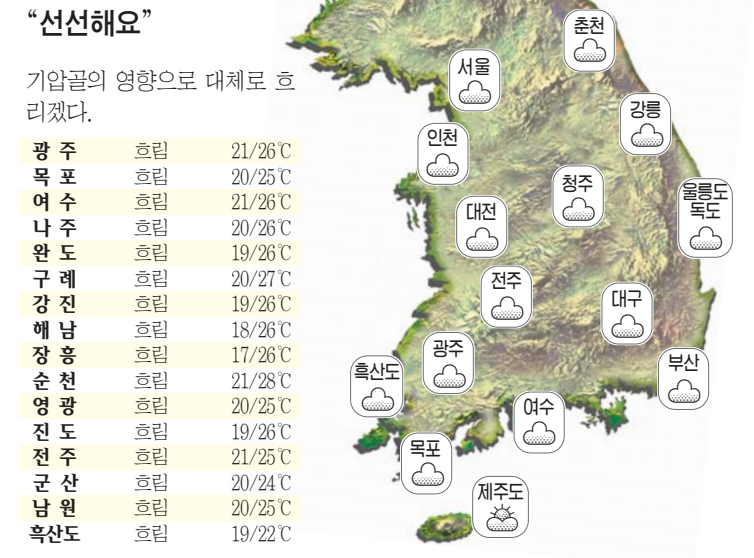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the sea (바다) and inland (지외선지수) for the day and night, including wind direction and speed, and visibility.

A table showing the 7-day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including daily weather icons, high/low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추석연휴 태풍소식...집중호우 가능성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제14호 태풍인 ‘콜라’ (KULAP·태국어로 장미라는 뜻)가 지난 7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약 940km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콜라를 계속 북서~서북서진해 오는 11일 오전 9시에는 제주 서귀포 남쪽 3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가위 보름달은 보기 힘들겠다”고 8일 밝혔다.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9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12일까지 내리겠으며 연휴 마지막날인 13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태풍 ‘무이파’ 피해 전남 4개 시·군

건보료 30~50% 낮춰준다

전남도는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양·구례·진도·신안 등 도내 4개 시·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춰 주는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해당 시·군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파악된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유아 RCY창단식’

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유아 RCY창단식’에서 단원으로 참가한 어린이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율 2.5%로 확대

광주시는 8일 “지역 대학생의 201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율을 기존 1%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을 1학기부터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광주시 이자지원 조례에 근거해 광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광주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주소를 둔 광주지역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광주시는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리(4.9%) 중 광주시가 2.5%p를 지원,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2.4% 이하가 돼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이들 비스트 1집 앨범

법원 유해물판정 효력정지

가사 내용이 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들 그룹 비스트의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전청장 부장관사)는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

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결정 통보 및 고시의 효력을 취소소송(본안)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5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1집 앨범 수록곡 중 ‘비오는 날엔’의 가사에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이 음반과 음악 파일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연남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Hangeo' (한겨레) featuring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and text promoting a gift certificate and a product called 'Daejeon Namnyeo Galmal' (대산프리모 남녀가발).